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 케이스포돔서 단독콘서트…데뷔 21주년 활동 본격화



그룹 신화가 데뷔 21주년을 맞아 20일과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케이스포돔에서 '2019 21ST 애니버서리 콘서트 첼터4'를 열었다. 신화 멤버들이 무대에서 열창하고 있다.

사진제공 | 신화컴퍼니

2만여 팬 앞에서 3시간 동안 30곡 열창  
매년 콘서트·새 앨범 발표 ‘팬들과 약속’  
해외투어 논의…멤버들 개별 활동 지속

다. 각 무대에서 약 3시간 동안 30곡 이상을 함께 불렀다. 10대와 20대부터 40대 중장년층까지 팬들은 이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누가 주인공이라고 할 것 없이 공연을 즐겼다. 무대에 처음 불이 켜지고 꺼질 때까지 3시간 내내 공연장에는 팬들이 흔드는 응원봉으로 주황 물결이 일었다.

이날 콘서트는 신화가 왜 신화인지들 다시 한번 입증한 무대였다. 매년 콘서트나 새 앨범을 발표하겠다는 자신감으로 21주년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데뷔곡 ‘해결사’를 시작으로 첫 가요대상을 받은 ‘브랜드 뉴’와 멤버별 군 복무 이후 발표한 ‘비너스’ 그리고 20주년 스페셜 앨범

타이틀곡 ‘키스 미 라이크 댓’ 등으로 자신들이 걸어온 21년의 시간을 노래와 춤으로 펼쳐냈다.

팬들의 환호성이 터지는 순간을 알고 이를 이끌어내는 멤버들의 여유 넘치는 모습은 21년 동안 함께해 온 이들이 얼마나 서로를 알고 있는지 그 돈독함을 새삼 과시했다. 특히 멤버들은 평균 나이 39.5세에도 ‘강철’ 체력을 과시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온 몸이 땀범벅이 되어도 쉬지 않고 무대를 이어갔다. 21년 동안 활동하며 쌓은 노하우와 프로페셔널함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이민우와 전진은 한창 활동했던 시절을

재현하듯 완벽한 안무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보컬 신혜성과 김동완은 여전한 가창력으로 공연장을 꽉 채웠다. 에릭과 앤디는 빼어난 랩 실력을 과시하며 팀워크는 물론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들은 21주년을 맞아 아시아로 영역을 넓히려 내부 논의 중이다. 개인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에릭과 이민우는 tvN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김동완은 KBS 2TV 드라마 ‘회사 가기 싫어’로 2년 만에 연기 활동에 나섰다. 신혜성, 전진, 앤디는 예능프로그램과 솔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 휘성 ‘녹취록’ 공개…누명 벗었다

에이미 “용서해줘”…휘성 “마녀사냥 그만”

방송인 에이미가 제기한 가수 휘성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잦아드는 모양새다. 휘성이 이와 관련한 에이미의 사과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휘성은 19일 유튜브를 통해 6분50초 분량의 영상을 올려 17일 에이미와 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에서 에이미는 “내가 반박글을 다시 쓸게,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라고 말했다.

앞서 2014년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마국으로 강제 출국됐던 에이미는 “과거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였던 남성 연예인 A와 함께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했다”고 최근 폭로했다. 이에 휘성이 해당



에이미

휘성

연예인으로 지목됐다. 에이미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휘성을 “소울메이트”라고 표현했고,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군 복무하며 관련 의혹으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근거에서였다. 하지만 휘성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휘성은 통화에서 에이미의 사과를 받아 자신에 대한 의혹을 씻어내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통화에서 휘성은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에이미는 “나는 네가 대단해 보였고, 나는 너한테 솔직히 말해서 자칫 지심 같은 것도 있었어”며 사과했다. 휘성과 소속사 측은 이후 SNS와 유튜브 동영상상을 통해 “마녀사냥을 멈춰 달라”며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휘성에 대한 의혹은 잦아드는 분위기이지만, 그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5월 펼쳐지려던 케이윌과 합동 콘서트를 이미 취소한 상태이기도 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박유천 “배달만” vs 황하나 “마약 같이 했다”

경찰, 이번주내 대질조사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수 박유천(33)과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31)가 결국 경찰 대질조사를 받는다. “박유천의 권유로 함께 마약을 했다”는 황씨와, “결단코 마약은 하지 않았고 황 씨의 부탁으로 입금, 뭇지 모를 상자만 배달해줬다”는 박유천의 진술이 엇갈려 경찰은 이들을 함께 불러 진실을 가려낼 방침이다.

21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번 주 안에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최관석 마약수사대

장은 이날 “박유천이 결백하다며 황 씨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 진실 파악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7일과 18일에 이어 박유천을 한 차례 더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후 대질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때 연인으로 결혼까지 약속했던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박유천이 서울의 한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20~30분 뒤 인근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

아 황 씨의 서울 한남동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에 박유천은 “황 씨의 부탁으로 누군가의 계좌에 돈을 보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를 물건을 찾아 황 씨의 집으로 가져다 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유천의 소변과 모발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반응 정밀감정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말 나올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머스트비, 교통사고 충격

매니저 사망·멤버 1명 중상

7인조 신인그룹 머스트비가 교통사고를 당해 매니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예계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서울교와 여의교 중간 도로에서 머스트비 멤버들이 탄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매니저 손모 씨(36)가 크게 다쳐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고 말았다. 차에 타고 있던 멤버 4명과 소속사 관계자 1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나머지 멤버들은 사고가 나기 전 차에서 내려 큰 피해를 면했다.

머스트비는 1월 싱글 ‘아이 원트 유’로 데뷔한 그룹이다. 이들은 이날 대구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등 탑승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줄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소속사 머스트엠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정확한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뮤지컬 ‘신홍무관학교’ 측은 출연 배우들이 탄 차량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서 접촉사고를 당해 이틀간 공연을 취소했다. 또 같은 달 11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의 스태프 20대 이모 씨가 소품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HOT 5

싸이, 래퍼 릴 디키 신곡 피쳐링 참여



싸이

가수 싸이가 세계적인 스타들과 호흡을 맞췄다. 싸이는 최근 래퍼 릴 디키의 신곡 ‘EARTH’에서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리아나도 디캐프리오, 할시, 마일리 사이러스 스눅독 등 30명의 월드스타들과 함께 피쳐링 참여했다. 지구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노래에서 싸이는 후반부 우리말로 “우리는 지구를 사랑해요”라고 노래해 화제를 모았다. 이 곡의 수익금 일부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리아나도 디캐프리오 재단에 전달된다.

SBS ‘열혈사제’ 시즌2 제작 가능성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의 시즌2가 나올 전망이다. 21일 ‘열혈사제’ 제작관계자는 “시즌1에 대한 시청자 호평에 힘입어 시즌2 제작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열혈사제’는 20일 22%(닐슨코리아)의 높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특히 마지막회에 ‘We Will be Back(다시 돌아오겠다)’는 문구를 내보내 호기심을 자아냈다. ‘열혈사제’는 김남길, 이하늬 등이 주연해 약에 맞서는 이야기를 펼치며 시청자 사랑을 받았다.

배우 구본임, 비인두암 투병중 사망



구본임

연기자 구본임이 2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 구본임은 1년여 동안 비인두암과 투병해왔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힘겹게 병마와 싸워왔지만 끝내 이겨지지 못했다. 구본임은 1992년 영화 ‘미스터 맘마’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나는 왕이로소이다’ ‘늑대소년’과 드라마 ‘금쪽같은 내 새끼’ ‘한강수타령’ 등에 출연해왔다. 고인의 빈소는 설악원원천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이다.

김재중, 日 아레나 투어 2개 도시 추가



김재중

가수 김재중이 일본 아레나 투어에서 2개 도시를 추가했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솔로 정규앨범을 내고 일본 아레나 투어 중인 김재중이 고베와 요코하마 등 2개 도시 추가 공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재중은 18일 일본 도쿄 무시시노모리 종합 스포츠 플라자에서 공연을 마쳤다. 김재중은 최근 솔로 정규앨범 ‘Flawless Love’를 발표하고 현지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가수 조문근, 네 살 연하 연인과 결혼



조문근

가수 조문근(34)이 4살 연하 연인과 21일 결혼했다. 조문근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다. 조문근의 신부는 뷰티업계 종사자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부터 사랑을 쌓아왔다. 이날 결혼식 사회는 조문근과 친분이 두터운 가수 일락이 맡았다. 조문근 커플은 약 한 달 예정으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조문근은 2009년 Mnet ‘슈퍼스타 K1’에서 준우승해 데뷔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